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생각을 달리하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여성을 사랑해도 당신만 행복하다면 나는 기쁩니다” 참으로 존 재하기 어려운 일이다. 샌드라테 이 오코너의 말이다.

오코너는 미국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연방대법관이였다. 그런데 갑자기 2005년 은퇴를 선언했다. 주지사다시 미국의 연방대 법관은 종신직이다. 그런데도 물 러난 것이다. 왜일까.

바로 남편 때문이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을 가까이서 돌봐주기 위해서다. 그는 이미 부인인 오코너는 물론 자기 자신까지도 인지하지 못했다. 요 양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치매환자의 생활은 자신 에게는 천국일지 모르지만 가족 에게는 지옥이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때문에 치매환자를 소홀히 돌

본다고 무조건 욕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결코 험사리 돌을 던 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 코너는 엄청난 명예를 갖고 있는 연방대법관까지도 놔버렸다. 대 단하지 않는가.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언젠가 남편이 요양원에서 만난 치매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봤다. 서로 애무를 함은 물론 손을 잡고 산책도 하는 등. 하지만 그런 현상들이 오코너에게는 기쁨 으로 다가왔다. 그렇게라도 남편 이 행복하길 바랐다.

오코너 부부의 아들이 “아버지 는 마치 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년 같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정서 적 안정을 찾게 됐으며 좋아하세 요.” 줄곧 자살 이야기만 했던 아 버지가 사랑에 빠진 뒤 행복해하 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것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처럼 누구나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도 세상을 달리 볼 수 있 다.

그런데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만 본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아니 타인의 견지에서 보고 들 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각각 자신의 시각에서 만 보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 까. 아수라장이 되지 않을까. 자기 색깔만 고집하기 때문에 노란 눈은 세상이 노란색이라고, 빨간 눈은 빨간색이라 우길 것이다. 그 러니 점점 나오겠는가.

때문에 날마다 머리 타지게 싸 우지 않겠는가. 권력층은 권력층 대로, 재벌들은 재벌들대로, 일반 국민들은 그들대로. 때문에 실권 을 하고 사업이 망하고, 살인을 하는 등 막가파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도 보도록 하자. 그 래야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 다양한 삶도 살 수 있으니까.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말 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코너의 삶의 자세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 가 크다 할 것이다.혹자는 말할지 도 모른다. 그의 남편은 인간무능 력자 상태인 치매환자이니까 가 능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쉬운 일 은 아니다. 아무리 인자능력이 떨 어졌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위치 에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그 럼 혹자가 우기듯이 그건 그렇다 고 치자.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매우 영광스런 자리인 연방대법 관 자리를 사퇴한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것도 극도의 자비력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인 남편을 위해. 생 각을 다시 각자에게로 돌려보자. 나이 든 치매환자인 남편 또는 아내를 위해서 그런 영광스런 자리 를 던질 수 있는가. 쉽지 않은 일 이다.

하지만 생각을 달리하면 가능 하다. 세상이 달리 보이기 때문이 다. 때문에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지금도 한창 싸우고 있 는 정치인들. 지칭 샴류충이라는 사람들. 제발 생각을 달리 가져보 라. 역지사지를 해보라. 분명히 뭔가 달라질 것이다.

社 說

‘알코올 사용장애’ 경계해야

지난해 ‘알코올 사용장애’로 의 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7만5천명으 로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 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4~ 2018년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이 5년간 연 평균 1%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9 일 밝혔다.

알코올 사용장애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수는 2014년 7만7천 869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만4천 702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으로 성별 환자수를 보면 남성은 5 만7천692명으로 여성(1만7천10명) 보다 3.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여성 100명당 남 성 환자는 2014년 6만2천여명에서 연평균 1.73% 감소했고, 여성 환자는 1만6천여명에서 연평균 1.6% 증가했다. 남성의 알코올 사용장애 가 여성보다 많은 것은 대부분 인 중 및 사회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물학적인 요인이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남성이

음주 등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경우 가 더 많은 환경적 요인과 입 신·양육 과정 등에서 여성이 급주 하게 되는 상황 등도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 진료 현황을 보면 전체 진료인원 중 50 대가 26.5%(1만9천793명)를 차지 해 가장 많았고, 40대가 20.4%(1만 5천256명)로 뒤를 이었다.

진료인원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여성은 40대가 22.8%(3천 883명), 남성은 50대가 28.2%(1만 6천299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진료실 인원의 비율인 ‘인구 10만 명당 진 료인원’을 살펴보면, 60대 243명, 50대는 234명이 ‘알코올 사용장애’ 진료를 받았다.

알코올이 신체 및 뇌 건강에 끼 치는 해로움은 점차 축적돼 50~60 대에는 과다한 알코올 사용으로 인 한 여러 어려움이 겹쳐서 드러나 환자의 건강 및 사회적 문제가 심 각하게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알코올의 섭취를 줄여나갈 수 있도 록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파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가 0021 (원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 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평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브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야외활동시 벌쏘임 조심

작년대비 기온이 높아짐에 따 라 최근들어 벌 활동량이 증가하 고 있다.

매년 초여름에서 가을까지 주 로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급격한 기온상승으로 주변에서 벌들이 빠르게 발견되고 있다.

2018년도 소방청 통계자료 중 119 구조신고 유형별 순위를 살 펴보면 처리건수 66만3526건 중 벌집제거 출동 건이 14만2888건

(21.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벌에 쏘여 병원을 찾은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벌쏘임은 통증도 심하지만 몸 에서의 이상반응으로 응급상황 에 처할 수 있다.

알레르기 증상 뿐 아니라 호흡 곤란증상에 빠지게 되면 신속한 현장 응급처치 및 2차 병원진료 가 이뤄지지 않을 시 사망에 이 를 수 있어 경각심을 갖고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벌에 쏘이지 않기 위한 예방법과 대처 방법을 소개하고 자 한다.

먼저, 제조작업 등 야외 활동 시 주위에 벌집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다.

그리고 벌은 냄새와 색깔등으 로 자극을 받게되면 공격성이 강 해지기 때문에 향수, 화장품, 스프레이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 다.

또한 밝은 색보다 어두운색에 더욱 공격성을 나타내는 습성이 있어 검은색 옷도 피해야 한다.

만약 벌에 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침을 신속히 제거한 후 흐르는 깨끗한 물로 상처부위 를 씻어내고 얼음찜질 등을 통해 독의 흡수를 지연시켜 가까운 병 원을 신속히 찾아 전문의의 적절 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벌집을 목격했을 때에는 선불 리 제거하려 하지 말고 위험을 느끼게 되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양승환 / 영암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